

미셸 위 '메이저 퀸'... US오픈 여자골프 우승

세계 1위 루이스 2타차로 제쳐
대회 유일 언더파 기록
프로 전향 9년만에 꿈 이뤄
유소연·최나연·박인비 등
4년 연속 한국계 우승 진기록

LPGA 투어 최종순위 US여자오픈골프

1	미셸 위	-2	278 (68 68 72 70)
2	스테이시 루이스	E	280 (67 73 74 66)
3	스테파니 메도	+1	281 (71 72 69 69)
4	양희영	+2	282 (71 69 68 74)
5	이미나	+3	283 (72 73 70 68)
유소연 (69 74 70 70)			
7	알렉시스 톰프슨	+4	284 (71 68 74 71)
요코미네 사쿠라 (74 68 71 71)			
폰아농 팻람 (71 73 69 71)			
10	카트리나 매슈	+5	285 (75 69 75 66)
제니 신 (74 70 73 68)			
매켄지 헨더슨 (71 73 72 69)			

연합뉴스



“아싸! 버디” 미셸 위가 2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 골프장에서 열린 US여자오픈 대회 마지막날 4라운드 17번홀에서 버디를 넣은 뒤 주먹을 쥐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미동포 미셸 위(25)가 제69회 US여자 오픈골프대회에서 생애 첫 메이저대회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미셸 위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파인허스트의 파인허스트 골프장 2번 코스(파70·6649야드)에서 끝난 마지막 날 4라운드 경기에서 이븐파 70타를 쳤다.
최종합계 2언더파 278타를 기록한 미셸 위는 세계랭킹 1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이븐파 280타)를 2타 차로 따돌리고 추배를 들었다. 2005년 10월 프로로 전향해 9년 만에 품에 안은 메이저대회 우승컵이다. 미셸 위는 우승상금 72만 달러와 시즌랭킹 포인트 625점을 수확했다.
이번 우승으로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 2013년 박인비 등 4년 내리 한국계 선수가 이 대회를 제패하는 진기록이 수립됐다.
또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한 한국계 선수는 박세리(LPGA 챔피언십 3회·US오픈 1회·브리티시오픈 1회), 박인비(US오픈 2회·LPGA 1회·나비스코 1회), 신지애(브리티시 2회), 최나연·유소연·김주연·지은희(US오픈 1회), 장정(브리티시 1회), 유선영·박지은(나비스코 1회) 등 11명으로 늘었다.
지난 4월 롯데챔피언십 정상에 올라 LPGA 투어에서 3년 8개월 만에 우승을 맛본 미셸 위는 여세를 몰아 US오픈까지

정복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그는 올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에서 역대 메이저대회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한 뒤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 유일한 언더파 우승자라는 사실이 달라진 미셸 위를 상징한다.
3라운드까지 2언더파를 쳐 공동 선두를 달렸던 2012년 준우승자 양희영은 초반 더블보기 등으로 4타를 잃고 4위로 내려앉아 아쉬움을 남겼다.
공동 3위권에 4타 앞선 상태로 4라운드를 맞이한 미셸 위는 15번 홀까지 보기 1개, 이를 1개로 1타를 줄이며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
16번 홀(파4)이 최대 위기였다. 우드로 때린 두 번째 샷이 그린 앞 벙커와 러프 사이 깊숙한 곳에 빠지면서 미셸 위는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고 1벌타를 받은 뒤 4번째 웨지샷을 쳤다. 이마저도 핀에서 한참 벗어나 더블 보기로 겨우 돌아왔다.
다시 루이스와 1타 차로 줄어든 고비에서 미셸 위는 17번 홀(파3)에서 티샷을 그린 위에 올린 뒤 약 8m짜리 그림같은 버디에 성공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연합뉴스



KIA, 효천고 출신 이민우 1차 지명

2015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최고 152km 직구 오른손투수

‘호랑이 군단’의 선택은 순천 효천고 출신의 이민우(사진)였다.
KIA 타이거즈가 24일 경성대 에이스 이민우(21·우투우타)를 2015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선수로 낙점했다.
KIA의 새 얼굴이 된 이민우는 186cm·90kg의 건장한 체격을 갖춘 우완정통파로, 140km 후반대 힘있는 직구를 바탕으로 한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이 돋보이는 선수다. 직구 구속은 140km대 중후반으로 최고 152km까지 기록했다. 슬라이더와 커브·체인지립 등 변화구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 경기 경험도 풍부해 선발 및 중간계투 등 활용 폭이 넓다는 평가다.
고교 시절 스승인 서창기 효천고 감독은 “포수 출신인데 고등학교 때도 상당히 좋은 포수로 활약했다. 힘이 있고 걸음은 느긋해 보이지만 근성도 있고 재능 있는 선수다”고 언급했다.
이민우는 “내가 정말 가고 싶었던 구

단이었다. 1차 지명으로 대학생을 뽑기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고향팀에서 뛰게 돼서 기분이 좋다.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로 인정을 받고 기대를 받게 돼서 영광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천북초 4학년 때 야구를 시작한 이민우는 순천 이수중-효천고를 거쳐 경성대에서 활약했다. 포수로 입학을 했지만 대학 1학년 봄 투수로 전향했다.
이민우는 “투수를 하고 싶었는데 초·중·고 모두 팀 사정상 포수를 했었다. 직구가 가장 자신 있다. 힘이 있고 컨트롤이 괜찮다. 연투, 완투도 되고 완공조절도 자신 있다”며 “5선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내년에는 신인이기 때문에 1군에 계속 머물면서 보고 배우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지명에 따라 효천고는 지난해 차명전에 이어 이민우까지 2년 연속 1차 지명 선수를 배출하게 됐다. 올 시즌 눈길을 끌고 있는 LG 외야수 채은성과 한화 투수 이태양도 효천고 출신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전망대

휴식기 앞둔 KIA, 총력전 펼친다



주중 SK전...김진우·양현종·홀튼 대기
4위와 3경기차...연승으로 상위권 추격

‘분위기 반전’을 이룬 KIA가 중위권 도약을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
침울이 진행된 KIA의 42연전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휴식기 없이 계속됐던 강행군, 오던 비도 그치면서 하늘만 쳐다보던 ‘호랑이 군단’이었다.
선발진들의 부상과 부진 속 어렵게 달려왔던 지난 시간이었지만 KIA는 주말 두산과의 원정경기에서 4연승을 찍으며 분위기가 반전에 성공했다. 두 경기 연속 행운의 경우 콜드 승을 거두는 등 하늘도 KIA 손을 들어줬다.
4승2패로 모처럼 흑자를 기록하면서 SK를 2.5게임차로 미루고 6위에 올라 있다. 5연패에 빠진 5위 두산과는 2경기차, 4위 롯데는 3경기 차로 추격 가시권에 있다.
뜨거운 팀 분위기에 총력전이 가능한 일정. KIA는 주중 SK와 홈경기를 치른 뒤 주말 휴식기에 들어간다.
김진우를 시작으로 양현종-홀튼 등

장에 멤버가 마운드에 대기하고 있다. 휴식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김병현·임준섭 등 선발 자원들까지 총가동할 수 있다.
타격도 꾸준하다. 출루상 속에서도 탄탄한 백업 구조가 이뤄지는 등 팀바퀴 돌아가듯 잘 맞물려 가고 있다. 이대형의 기세가 잘 잡혀지자 김주찬이 불타는 6월을 보내며 이를 만회하고 있다. 김주찬은 6월 19경기에서 36개의 안타를 만들어내며 0.468의 타율을 보이고 있다. 필이 빠진 자리에서는 안치홍이 힘을 보태고 있다. 6월 0.355의 고공타율을 찍고 있는 안치홍은 6개의 홈런까지 날리며 중심타선을 받치고 있다. 이성우도 안정된 수비와 집중력 있는 타격으로 ‘안방경쟁’에 뛰어 들었다.
KIA가 안방에서 기분 좋은 연승을 이으며 무늬가 순위싸움에 뛰어 들 수 있을지 기대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아쉬운 '탱크샷'...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공동 2위

최종 14언더파 266타로 1위 스트릴먼에 1타 뒤져
올 시즌 최고 성적...배상문 8언더파 공동 24위 기록



최경주가 23일 미국 코네티컷주 리버 하이랜드TPC에서 열린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마지막 4라운드 7번홀에서 버디 퍼팅에 성공한 뒤 주먹을 쥐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44·SK텔레콤)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3년여 만의 우승 기회를 아쉽게 놓쳤다.
최경주는 23일 미국 코네티컷주 리버 하이랜드TPC(파70·6841야드)에서 열린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묶어 3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4언더파 266타를 기록한 최경주는 우승자인 케빈 스트릴먼(미국)에게 불과 한 타 뒤진 공동 2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로써 최경주는 올해 1월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공동 2위에 오른 데 이어 올 시즌 가장 나은 성적을 올렸다.
선두에 2타 뒤진 공동 3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최경주는 이날 전반에 1타를 줄인 데 이어 12~13번홀 연속 버디에 힘입어

단독 선두로 뛰어올라 2011년 5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이후 모처럼 우승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타수를 더는 줄이지 못한 채 스트릴먼에게 역전을 허용, PGA 투어 통산 9승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뤘다.
12~18번홀에서 믿을 수 없는 버디 행진을 펼치며 역전 우승을 차지한 스트릴먼은 지난해 3월 탬파베이 챔피언십에 이어 약 1년 3개월 만에 통산 2승을 달성했다.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가 최경주와 공동 2위에 올랐고, 애런 배들러(호주·13언더파 267타)에 4위에 자리했다.
배상문(28·켈러웨이)은 마지막 날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24위(8언더파 272타)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